

보시는 평생과업...

박명혜 (자행회 회장)



박명혜 자행회 회장은... 1934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까지 다녔다. 1979년 여성불교신도회 보문회를 발족해 20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며 전국 사찰과 학교 병원 불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여성문화원 공동이사장, 불교여성개발원 부설 지혜로운여성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자행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제23회 포교대상 원력상 부문에서 수상했으며(2011), 2011년 장애인의 날 보건복지부에서 시상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박명혜 사단법인 자행회 회장(82)은 평생 보시행을 실천한 인물이다. 불교여성 신도회인 보문회를 결성해 회원들과 전국을 다니며 보문사, 망월사, 월정사, 상원사 등 30여 사찰을 비롯해 비구니회관·동국대 병원 등의 불사를 지원했다. '인재불사'도 중요시 여겨 장학금 지원과 비구니 스님 의료비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행회 회장직을 맡으며 자혜학교, 수봉재활원에서 심신 장애인의 재활을 도왔다.

박 회장은 생활 속 보시행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외출할 때마다 가방 속에 사랑과 초콜릿을 넣어 갖고 다니며 경비원과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또는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에게 건넨다. 30년째 지켜온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 서온 박 회장이 처음에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절을 다녔다. 그런데 열심히 부처님 일을 하며 살다보니 점점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귀결됐다. 고민하던 문제들은 알아서 자연적으로 해결됐고,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 라고 분별할 필요 없이 내 앞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저 역시 40여 년 전 '가족 잘 되게 해 달라'는 마음으로 절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도반들과 여러 사찰 건립불사에 참여하면서 '복 짓는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열심히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도심' 범명 받고 불교에 귀의

학창시절 기독교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던 박 회장은 1974년 처음 친구의 손에 이끌려 북한산 승가사를 방문했다. '소원을 들어 준다'는 친구의 말에 호기심으로 찾았던 절에서 금세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집안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가사 대의(大義) 스님에게 절하는 법과 기본적인 사찰예절을 배운 박 회장은 집 근처 선학원으로 매일 새벽예불을 다녔다. 승가사와 강화 보문사도 찾아다니며 기도 정진했다. 당시에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절에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이 무렵 대의 스님은 박 회장이 대도심(大道心)이란 범명을 지어줬다.

불교에 흠뻑 빠져 열심히 수행활동을 이어가던 박 회장이 초하루 방생법회는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한쪽에서 자리를 풀어주고 바로 아래에서 다시 잡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방생법회에 참석하지 않게 됐죠. 그때 마침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됐는데 스님께 여쭙더니 책 불사를 하라고 조언하셨죠. 전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도반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9년 승가사 소속 보살들로 구성된 여성불자 모임인 '보문회'가 탄생했다. 당시 회원들과 강화 보문사로 매월 2박 3일 기도를 다니던 때라 보문사 성수 스님이 '보문회'라고 지어줬다. 창립 회장을 맡은 박 회장은 20여년을 보문회

와 함께 했다.

30여 사찰과 불교기관에 보시행

박 회장과 보문회 회원들은 1년에 8~9회 씩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전등사, 낙산사, 월정사, 구룡사 등 사찰 불사를 지원했다. 단순히 물질적 모연만 하지 않고 3000배 철야정진을 하며 불사가 원만회합 될 수 있도록 발원했다.

"사찰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이곳은 이렇게 도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반들이랑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불사보시를 참 재밌고 신바람 나게 했죠. 가끔 기금이 잘 마련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항상 모든 문제가 자연적으로 원만히 해결됐어요."

이 무렵부터 박 회장은 불사를 위해 생활도 수행자 처럼 바꾸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를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금강경> <반야심경> 사경을 시작했다. 1981년부터 이어진

친구 따라 처음 간 승가사와 첫 불연 승가사 소속 회원들과 보문회 결성 20년간 전국 사찰 불사보시 이끌어

탄허·성철 스님 가르침에 인재불사 시작 비구니회관, 중앙승가대 건립 도와 장애인 지원 사업에도 관심 기울여

1981년부터 매일 아침 금강경 사경 "하루 충실히 살며 이웃 돕다 가고파"

<금강경> 사경 수행은 지난 2012년까지 이어졌다. 사찰 불사를 앞두고 있을 때나, 사찰 순례를 떠나기 전 항상 <금강경> 사경을 했다. 또 틈틈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금강경>을 독송했다.

"사경을 하면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정을 얻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경은 과거의 속업과 현재의 업보를 녹이는 참회이자,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예요. 이웃에게도 그 기도의 힘이 전해지죠."

회장 시절, 박 회장은 1년에 1억 원 가까이 모연한 적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는데, 이는 박 회장의 지극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 회장은 보문회 회원들의 가족카드를 만들어 매일 새벽 4시 자신의 기도 때 축원을 올렸다. 회원 가족사랑까지 파악해 사찰 순례 때면 그 가족의 영가 천도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손수 준비해 천도기도를

올려줬다. 순례 하루 전날 먼저 사찰에 도착해 회원들을 극진히 맞이했고, 오가는 차에서 먹을 음식과 간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고 비용을 줄여 불사금에 보탬했다. 모연된 불사금은 매일 일기 쓰듯 장부에 적어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또한 박 회장과 함께 기도순례를 가면 모든 일이 원만 성취되니 회원들의 신심은 점점 깊어졌고, 무슨 불사든 박 회장을 믿고 흔쾌히 동참했다. 그 결과 처음 50명 회원으로 시작된 보문회는 3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모임으로 성장했다.

"사경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을 할 때 망설임이 없어졌어요. 거침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밤 늦게 까지 회원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만들고 새벽에 일어나 <금강경> 사경하고, 또 주어진 일은 주저함 없이 했어요. 기도를 하니 지혜의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탄허·성철 스님과 인연

박 회장은 상원사와 인연이 돼 서울 대원암으로 탄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다니면서 마지막 유발 상좌가 됐다.

"탄허 스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저는 그런 스님께 천진순진하게 '스님 열반하실 때 대원암 제계 주세요' 했죠. 스님은 흔쾌히 '그래, 너 좋게 하겠어요. 평소 인재불사를 중요시 여긴 탄허 스님은 교육을 위한 법당건립 발원을 하셨는데 그때 마다 '반은 제가 맡겠다'고 다짐했어요."

탄허 스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박 회장은 1년간 6천여 만원을 마련했다. 그 즈음 탄허 스님이 입적했고, 탄허불교문화재단과 보문회 장학재단이 탄생했다.

"탄허 스님께서는 늘 '허공 무서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불력박스에 기록되듯 입력돼 인과로 돌아오는 거죠. 제 삶의 지점이 됐습니다."

한편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보문회 회원들과 14시간 동안 3천배를 하고 성철 스님을 친견할 때였다.

"성철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네가 대장이지?' 하면서 '여기저기 불사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신문 값 받으러 오는 학생에게 굴이라도 하나 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 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런 큰 울림이 다가왔죠."

이때부터 박 회장의 사랑 보시가 시작됐다. 항상 사랑 등 먹을 것을 가방에 챙겨서 택시기사, 경비원, 은행청년, 학생들에게 나누어줬다. 처음에는 사랑하나 건네는 게 부끄러웠더니 이제는 습관이 돼 자연스럽게 되었다. 사랑 보시는 보문회 회원들에게도 전파가 돼 하나의 '문화'가 됐다.

인재불사를 강조한 성철 스님의 뜻을 이어 보문회는 정도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금 마련을 비롯해 전국 비구니 회관 건립, 중앙승가대 건립 등 전국 주요 사찰과 학교, 병원에도 손을 내밀었다. 또한 역경사업, 장학사업, 장애인 지원 사업 등 불교 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했다.

1985년 (사)자행회 이사를 맡게 된 데에도 성철 스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회사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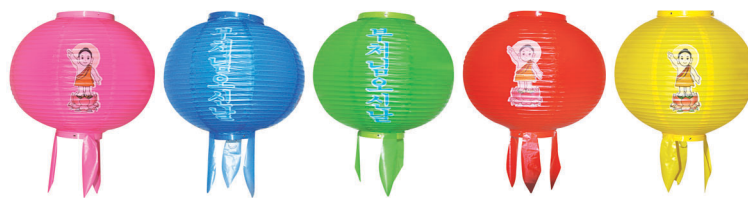
자등 연등 승강 장치



인등 시공



만월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단등



황금등

연꽃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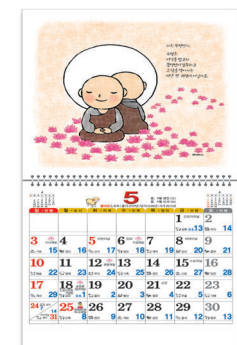


정품 LED 전구



- 기존 전구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규격 13매 (305×308mm)
- 29호 12월 13매 (257×263mm)